

역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면적으로
폐지할데
대한
조치

공화국은 후대교육사업을 혁명의 전...
공화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반적 무로 교육제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함길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위대한 한 수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유격근거지들에 아동단학교들을 세우고 무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주체25(1936)년 5월 5일에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해방된 조국에서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해방직후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하여주시고 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 취해주시였으며 전후에는 전반적 초등무교육과 전반적 중등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으로써 인민학교(당시)와 초급중학교(당시), 초등학교, 유아원, 기능전수학교, 사범전문학교, 각종 특수교육기관, 각종 간부양성기관 등에서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하여주시였다.
이후에 따라 그해 4월 1일부터 수업료를 완전히 없애는 역사적조치가 취해지게 되였으며 각종 학교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게 되였다.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 무로교육제의 실시는 공화국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안겨주고 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나라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후대들을 위한 무로교육제도를 변함없이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9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 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후대교육사업에 억만금도 아끼지 않았을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낳은 결정체이며 공화국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대한 힘있는 과시였다.
전세위원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공화국의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기 어 땅에서는 세대대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수업료라는 말조차 모르고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하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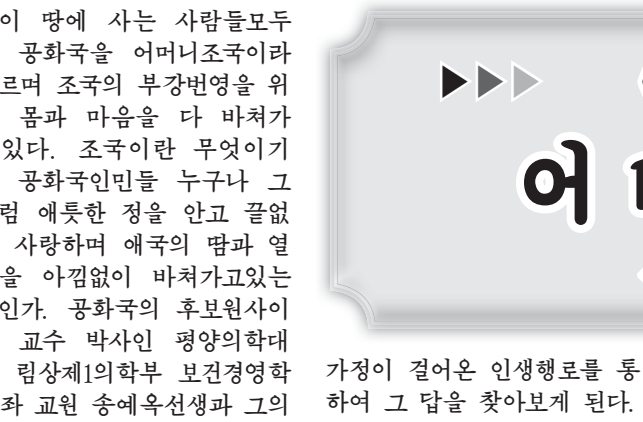
오래동안 인류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를 예뻐하며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지상천국을 그려보았다. 하다면 인류가 이처럼 바라던 지상천국은 이룰수 없는 공상이었다.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한 세계종교계의 이름있는 한목사는 기자에게 《조선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성서에 있는 모든것이 이미 이루어졌기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서방의 한 인사도 사회주의적시책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을 보며 조선이야말로 세상에 없는 인민의 지상천국이다. 죽어서 천당에 갈것이 아니라 현세의 지상천국인 조선에서 살고싶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인류의 이상이 실현되고있는 공화국에 대한 세인의 칭송이라 해야 할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인민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어길수 없는 국책으로 하고있다. 나라의 곳곳에 훌륭히 일떠서 문화정서생활지들에서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고있다.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그곳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들의 편의가 우선시되고있으며 누구나 일터의 주인이 되어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다.
《나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두번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껏 이처럼 따사로운 품이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셨었다는것을 다 모르고 살았습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말은 평안남도 숙천군의 평범한 농장원녀성이 러친 심장의 고백이다. 뜻하지 않게 사경에 처하였던 그를 도병원의 의료진들이 온갖 정성을 기울여 기적적으로 살려냈다.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을 나서는 그의 눈앞에 어려웠다. 머리맡에서 밤을 밝히

며 극진히 돌봐주던 간호원이며 갖가지 열음음식을 안겨주며 인심을 쓰던 의사선생들의 모습이...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에게 과장선생은 말하였다. 정성을 다하여 환자를 치료하는것은 의료진들의 응당하는 본분이라고, 인사는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드러야 한다고.
날마다 일떠서는 선경거리, 선경마을,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러치는 이 나라 인민들의 격정의 목소리는 또 어떤가.
《나같은 평범한 노동자가 이런 궁핍같은 새집을 받아안았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이 어려있는 새집에 들어서고 보니 하루를 열흘, 백날맛잡이로 일하여 하늘같은 은혜에 보답할 생각뿐입니다.》
《이런 호화주택에서 평범한 무깨도전차전자부반인 우리들이 살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
돌아보면 건설의 대변영기와 더불어 얼마나 많은 인민사들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었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초보적인 노동의 권리와 조건마저 유린당하고있다.
《업자들은 자동차부속품이나 기계는 조금만 손상이 되어도 큰 변이라도 난듯이 고대하지만 노동자가 다치거나 기계에 깔리는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흔히 있을수 있는 일로 무난히 여긴다. 이 땅에서 노동자들은 기계부속품보다 못한 인간, 무권리한 존재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노동자의 절구만이 아니다. 돌아가는 기계에 갇히고 집합에 깔리고 떨어지는 돌에 맞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하우에도 주시며 명석 생죽음을 당해야 하는것이 바로 남조선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이다.
한쪽에서는 사회의 1%도 안되는 특권층이 돈을 몰수듯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엄청난 치료비때문에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속에 신음하다 숨지고있는것이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다.
사회로 남조선사회야말로 극소수의 특권층에게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는 사람 못살 지옥, 인권의 동토대이다.
신길원

특권층에겐 천국,
서민들에겐 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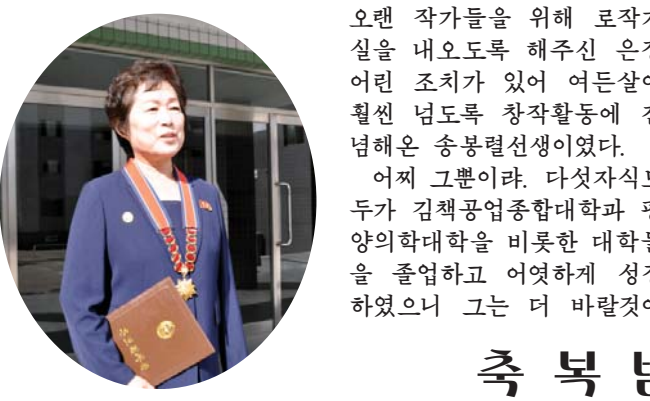
《특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 《자본과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불모지》, 《공정과 평등이 사라진 땅》...
이것은 남조선의 그 어느곳에서나 울려나오고있는 저주와 개란의 목소리이다.
남조선에서 극소수의 특권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있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은 극심한 생활난에 허덕이며 비판과 절망속에 살아가고있다.
살림집문제만 놓고보더라도 특권층들은 여러 호화주택들을 독차지하고 부귀와 향락을 추구하고있지만 서민들은 쫓박과 집합, 판자집과 같이 아닌 집에서 살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언론들이 《이 땅에 아바트는 많지만 하늘아래

서민들이 맘편히 누울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불안한 생활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아가고있다.》고 개탄하듯이 남조선에서 집이 없어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오죽했으면 팽주주의 한 청년이 《몸담고 살 곳조차 없다. 매일이 오는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는가. 이런 비극은 남조선에서 피리를 물고일어나고있다.
되여도 큰 변이라도 난듯이 고대하지만 노동자가 다치거나 기계에 깔리는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흔히 있을수 있는 일로 무난히 여긴다. 이 땅에서 노동자들은 기계부속품보다 못한 인간, 무권리한 존재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노동자의 절구만이 아니다. 돌아가는 기계에 갇히고 집합에 깔리고 떨어지는 돌에 맞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하우에도 주시며 명석 생죽음을 당해야 하는것이 바로 남조선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이다.
한쪽에서는 사회의 1%도 안되는 특권층이 돈을 몰수듯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엄청난 치료비때문에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속에 신음하다 숨지고있는것이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다.
사회로 남조선사회야말로 극소수의 특권층에게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는 사람 못살 지옥, 인권의 동토대이다.
신길원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가 공화국을 어머니조국이라 부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다. 조국이란 무엇이기에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이처럼 애뜻한 정을 안고 끝없이 사랑하며 애국의 딸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것인가. 공화국의 후보원사이며 교수 박사인 평양의학대학 립상제1의학부 보건의정영학 강사 교원 송예옥선생과 그의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어머니조국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 평양의학대학 교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 송예옥 -



가정이 절어은 인생행로를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게 된다.
광명에서
공화국에서 첫 50대녀성 후보원사인 송예옥선생에게는 남달리 호칭이 많다. 정성리론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보건경영학분야의 실력있는 권위자, 손꼽히는 교육자...
교육자로서, 과학자로서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적인 길을 걸어온 그녀를 알고있어서 얼마전 우리는 송예옥선생을 찾았다.
평양의학대학에 도착하여 그를 만나보려고 하니 대학의 일꾼들은 그가 학생들에게 한강 강의를 하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한동안 송예옥선생이 강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못볼처럼 빛나는 눈길들이 모아지는 속에서 강의내용을 친절하면서도 알기 쉽게, 폭넓고 깊이있게 배워주는 열정넘친 그의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였다.
얼마후 송예옥선생과 마주 앉아 물었다. 인생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보니 먼저 떠오르는것은 무엇인가고.
《자식들이 성장할 때마다 제일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눈을 감기 전 박사가 된 딸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버지께 잊을수 없습니다. 사실 저의 아버지야말로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생전환을 하고 바라던 모든 꿈과 희망을 이룬 행복자였습니다.》
이외로 취재는 송예옥선생의 아버지(송봉렬)에 대한 이

오랜 작가들을 위해 로작자실을 내오도록 해주신 은정 어린 조치가 있어 여든살이 훨씬 넘도록 창작활동에 전념해온 송봉렬선생이였다.
어찌 그뿐이랴. 다섯자식모두가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의학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을 졸업하고 어엿하게 성장하였으니 그는 더 바랄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곤 하였습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만을 믿고 살라고, 그 품에서만 사람답게 살수 있고 너희들의 꿈도 실현될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편이한 두 사회를 체험한 아버지의 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송예옥선생은 이야기했다. 절세위원들의 따뜻한 축복이 있었기때문이라고.
《1961년 8월 15일이였습니다. 이날 어머니수령님께서 내가 살고있던 중구역 경성동의 우리 인민반을 찾아오시였습니다. 인민반장을 하던 어머니가 너무 기쁜 나머지 갖난이런 나를 안고 수령님앞에 나왔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 태어난지 여덟달밖에 안되신 저를 사랑의 환포에 꼭 안아주시며 딸이 귀엽게 생겼다고, 앞으로 잘 키우라고 정을 담아 축복해주셨습니다.》
돌로 채 되기 전에 어머니수령님의 축복을 받아안은 송예옥선생의 삶은 달리될수 없었다.
태양의 따사로운 해빛이 아기에 슬기를 준듯 송예옥선생은 어려서부터 공부로 잘하였다. 평양의학대학에

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 《인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길에서》, 《광명백과사전》 등 국가적의의가 큰 도서를 편이여 집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송예옥선생은 국제 학술토론회에서 공화국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해설론중하여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나라의 평범한 교육자로서 용감한 일을 할지려 제 14차 전국교원대회 주석단에 앉혀주시고 몸가짜이 부르시어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 주실 때 이 세상 온갖 행복을 혼자 받아안은 심정이였습니다.》
평양의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이 아니었다면 어찌 오늘의 내가 있을수 있었는가고. 정말이지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으로 천만사람들의 삶을 행복의 열매로 무르익게 하는 곳이 바로 사회주의 내조국입니다.》
전세위원들의 따뜻한 축복속에 어엿하게 성장하고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 올라선 송예옥선생. 오늘도 그는 키워주고 내세워준 위대한 조국에 온갖을 갚고리 바쳐가며 생의 자욱을 닦아나고있다.
본사기자 홍병식

